

2016. 03. 28. ~ 04. 01. 주간

78  
VOL

#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쌀 및 한우 가격동향 및 전망

##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기능성 버섯으로 중동시장 개척 ‘앞새마을’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빠른 추석 이앙시기 앞당겨야 “햅쌀” 생산가능
- 블루베리 썬기벌레 방제는 지금부터

## 정책동향

- 수박꼭지 유통 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 실시

##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5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8

- ▶ 쌀 및 한우 가격동향 및 전망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광양시, (주)뷰인스 간, 치유중심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담양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수지 개선' 두 마리 토끼 사냥
- ▶ 곡성군, 토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기본교육 실시
- ▶ 고흥군, “비전 5000 품목별 소득왕” 16명 선정
- ▶ 보성군, '장도' 도서지역 토양 시료 채취 분석
- ▶ 화순군, (주)이마트와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 ▶ 강진군, 귀농·귀촌1번지 앞장선다
- ▶ 무안군,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 완도군, 완도스마트 본격 출하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1

- ▶ “칭다오·시안 등 중국 2선 도시…김치·고추장 수출잠재력 높아”
- ▶ 기능성 버섯으로 중동시장 개척 ‘앞새마을’
- ▶ 천안포도 올해 200톤 수출 목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7

- ▶ 빠른 추석 이앙시기 앞당겨야 “햅쌀” 생산가능
- ▶ 블루베리 썬기벌레 방제는 지금부터
- ▶ 작물 쑥쑥 자라게 돕는 광합성 세균 개발
- ▶ 감자 터짐 증상, 수확 늦을수록 심해요
- ▶ 이제 농장 날씨·재해 정보, 미리 휴대전화로 받아본다
- ▶ 감자는 농업기계를 깨워 준비운동 시키자 !

❁ 정책 동향 ..... 35

- ▶ 수박꼭지 유통 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 실시
- ▶ 15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 전액 지급완료
- ▶ 국가식품클러스터, 강소 식품기업 유치 가속화
- ▶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 미국, 자유무역 협정으로 10년간 낙농가 83억달러 추가소득
- ▶ 지난해 대만 수입식품 통관검사, 국산 배추·소스류 불합격 판정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3.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작물 생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겨울 밀 벨트지역의 건조한 기상 상태에 대한 우려로 기술적인 매수세와 숏커버링 거래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세계적으로 풍부한 사료용 곡물 재고량 부담과 세계 2위 곡물 소비국인 중국의 옥수수 선물가격 급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밀 선물가격 상승 지지로 소폭 상승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의 봄 파종 보고서 발표 전 거래인들의 포지션 조정을 위한 차익실현 거래로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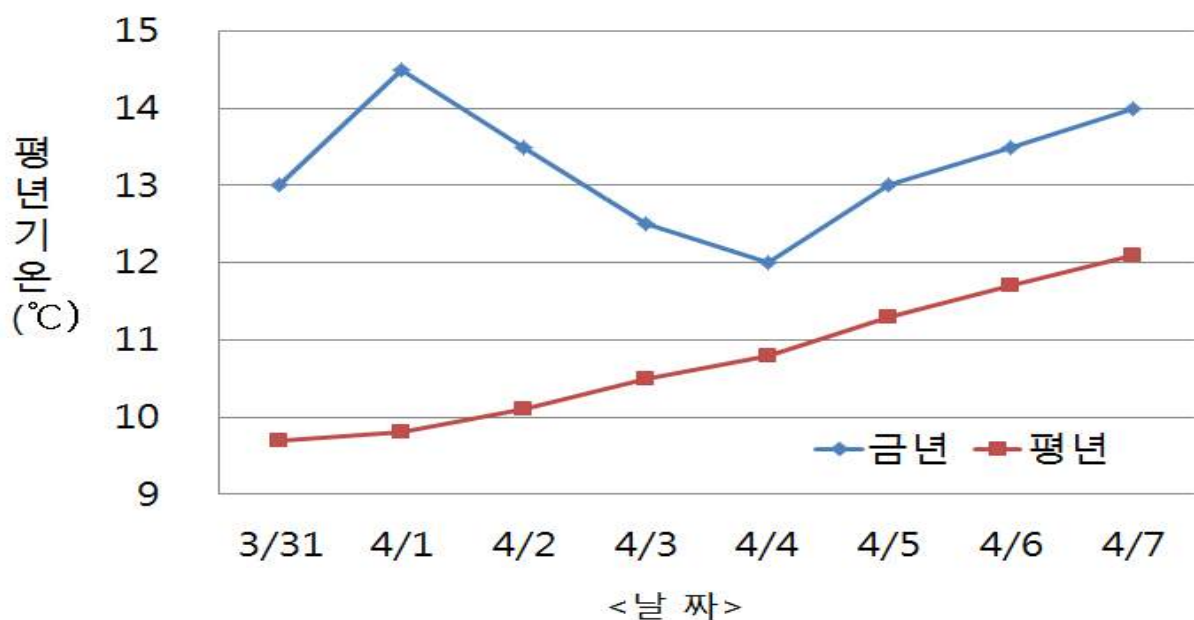
- ▶ 제2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 공모
- ▶ 중국 수출용 쌀 안전성 확보 나선다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3	10.8	2.5	18.3	17.2	1.0	8.3	5.1	3.2	2.0
3. 31.(목)	13.0	9.7	3.3	17.0	16.0	1.0	9.0	4.4	4.6	2.1
4. 01.(금)	14.5	9.8	4.7	18.0	16.1	1.9	11.0	4.6	6.4	2.1
4. 02.(토)	13.5	10.1	3.4	19.0	16.5	2.5	8.0	4.8	3.2	2.1
4. 03.(일)	12.5	10.5	2.0	18.0	17.1	0.9	7.0	4.9	2.1	2.1
4. 04.(월)	12.0	10.8	1.2	17.0	17.4	-0.4	7.0	5.1	1.9	2.1
4. 05.(화)	13.0	11.3	1.7	18.0	17.8	0.2	8.0	5.5	2.5	1.7
4. 06.(수)	13.5	11.7	1.8	19.0	18.4	0.6	8.0	5.8	2.2	1.7
4. 07.(목)	14.0	12.1	1.9	20.0	18.6	1.4	8.0	5.3	2.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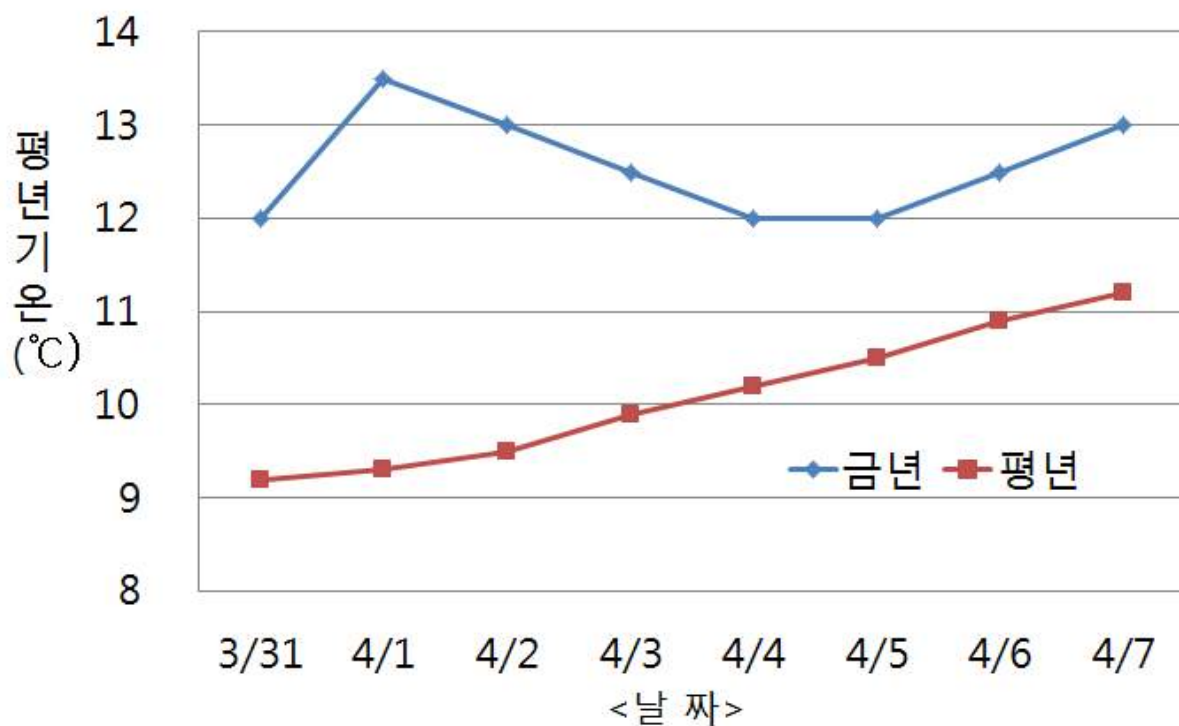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2.6	10.1	2.5	16.5	15.6	0.9	8.6	5.9	2.8	2.0
3. 31.(목)	12.0	9.2	2.8	15.0	14.7	0.3	9.0	5.1	3.9	2.0
4. 01.(금)	13.5	9.3	4.2	16.0	14.6	1.4	11.0	5.2	5.8	2.1
4. 02.(토)	13.0	9.5	3.5	17.0	14.9	2.1	9.0	5.4	3.6	2.2
4. 03.(일)	12.5	9.9	2.6	17.0	15.4	1.6	8.0	5.6	2.4	2.3
4. 04.(월)	12.0	10.2	1.8	16.0	15.7	0.3	8.0	5.9	2.1	2.0
4. 05.(화)	12.0	10.5	1.5	16.0	16.1	-0.1	8.0	6.2	1.8	1.8
4. 06.(수)	12.5	10.9	1.6	17.0	16.6	0.4	8.0	6.5	1.5	1.6
4. 07.(목)	13.0	11.2	1.8	18.0	16.9	1.1	8.0	7.0	1.0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0	11.1	1.9	16.1	15.4	0.7	9.9	7.4	2.4	3.0
3. 31.(목)	12.5	10.2	2.3	15.0	14.6	0.4	10.0	6.6	3.4	3.1
4. 01.(금)	13.0	10.4	2.6	15.0	14.8	0.2	11.0	6.7	4.3	3.2
4. 02.(토)	13.0	10.5	2.5	16.0	14.9	1.1	10.0	6.8	3.2	3.2
4. 03.(일)	12.5	10.8	1.7	16.0	15.2	0.8	9.0	7.1	1.9	3.0
4. 04.(월)	12.5	11.2	1.3	16.0	15.5	0.5	9.0	7.5	1.5	2.9
4. 05.(화)	13.0	11.5	1.5	16.0	15.7	0.3	10.0	7.9	2.1	2.8
4. 06.(수)	13.5	11.9	1.6	17.0	16.1	0.9	10.0	8.3	1.7	2.3
4. 07.(목)	14.0	12.1	1.9	18.0	16.3	1.7	10.0	8.6	1.4	3.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쌀 및 한우 가격동향 및 전망

#### I. 쌀 가격동향 및 전망

□ 정부, 쌀 적정 생산유도를 통해 금년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 목표

○ 지난 해(15. 12. 31.) 정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재배를 확대하여 2019 양곡 연도까지 벼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금년 목표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만ha 줄어든 76만 9천ha로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및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감축시킬 예정이다.

□ 2016년 농가 순수 벼 재배 의향면적 78만 1천ha

○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적정 생산유도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분이 제외된 2016년 농가 순수 벼 재배 의향면적은 78만 1천ha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2016년 1월 초) 조사치보다 1천ha 감소한 수준으로 2015년산 산지 쌀값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확기대비 가격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벼 가격 하락폭이 컸던 영남지역의 재배 의향면적이 2.6% 감소하고 충청 2.4%, 호남과 강원·경기가 각각 2.2, 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조생종 재배 의향면적이 전년대비 3.2%, 중/중만생종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정부의 쌀 적정 생산유도 목표 달성수준에 따라 5월에 실시 될 재배 의향면적 조사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 II. 한우 사육과 가격 전망

### □ (사육전망)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3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 만 마리보다 감소한 261만 마리 전망
- 6월은 전년 동월(275만 마리)보다 감소한 270만 마리 전망

### □ (공급전망) 4~5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4~5월 도축은 전년보다 15% 내외 감소 전망
-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5% 내외 증가 전망

### □ (가격전망) 4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월 한우 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7,000~19,000원/kg(지육)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3. 2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8)	1주일전 (03/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2,133	↓ 11.3	↓ 14.1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6,000	183,053	↑ 10.3	↓ 18.1
	고구마(밤)	10kg	26,800	26,800	27,200	28,000	26,773	↓ 4.3	↑ 0.1
	감자(수미)	20kg	30,400	31,800	31,100	34,200	26,400	↓ 11.1	↑ 15.2
채소류	배추(월동)	1kg	1,320	1,200	1,003	505	901	↑ 161.4	↑ 46.5
	양배추	10kg	7,600	7,500	6,300	6,025	6,728	↑ 26.1	↑ 13.0
	오이(다다기계통)	10kg	27,000	36,333	37,750	23,778	30,367	↑ 13.6	↓ 11.1
	애호박	8kg	20,600	27,400	26,000	19,100	20,827	↑ 7.9	↓ 1.1
	토마토	10kg	36,800	39,600	30,750	30,600	34,297	↑ 20.3	↑ 7.3
	당근	20kg	24,800	25,200	25,000	21,000	26,467	↑ 18.1	↓ 6.3
	건고추(화건)	60kg	756,000	780,000	780,000	820,000	862,667	↓ 7.8	↓ 12.4
	풋고추	10kg	48,200	51,000	71,400	56,050	51,577	↓ 14.0	↓ 6.5
	마늘(깐마늘)	20kg	163,000	163,000	161,750	107,200	118,240	↑ 52.1	↑ 37.9
	양파	20kg	31,400	32,600	32,200	12,800	14,571	↑ 145.3	↑ 115.5
	대파	1kg	2,460	2,560	2,988	1,485	1,690	↑ 65.7	↑ 45.6
	파프리카	5kg	25,000	27,200	31,550	28,250	30,257	↓ 11.5	↓ 17.4
	멜론	8kg	28,600	29,400	26,500	27,750	42,851	↑ 3.1	↓ 33.3
	방울토마토	5kg	25,200	30,000	24,700	23,500	26,273	↑ 7.2	↓ 4.1
	수박	1개	18,400	19,200	16,350	16,350	16,307	↑ 12.5	↑ 12.8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6,750	42,600	51,274	↓ 13.1	↓ 27.8
	배(신고)	15kg	44,000	44,000	45,350	40,250	45,631	↑ 9.3	↓ 3.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8)	1주일전 (03/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9,533	↑ 0.2	↓ 7.1
	느타리버섯	2kg	11,600	11,800	9,500	12,750	12,387	↓ 9.0	↓ 6.4
	새송이버섯	2kg	8,800	9,000	8,850	8,550	8,730	↑ 2.9	↑ 0.8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74	7,967	8,059	6,520	5,939	↑ 25.4	↑ 37.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36	1,874	1,779	1,742	1,759	↑ 11.1	↑ 10.1
	닭고기	1kg	5,625	5,584	5,121	5,308	6,149	↑ 6.0	↓ 8.5
	계란(특란)	30개	5,422	5,347	5,461	5,729	5,718	↓ 5.4	↓ 5.2
	우유	1리터	2,549	2,549	2,546	2,548	2,368	- 0.0	↑ 7.6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3. 28.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54 천원	5,769 천원	4,147 천원	↑ 1.5	↑ 41.2
	거세	6,818 "	6,864 "	5,333 "	↓ 0.7	↑ 27.8
송아지 (6~7월)	암	2,864 "	2,693 "	1,479 "	↑ 6.3	↑ 93.6
	수	3,468 "	3,271 "	2,093 "	↑ 6.0	↑ 65.7
육우(600Kg)		3,768 "	3,713 "	3,547 "	↑ 1.5	↑ 6.2
젖소수송아지(7일령)		232 "	207 "	94 "	↑ 12.1	↑ 146.8
돼지(110kg)		359 "	346 "	371 "	↑ 3.8	↓ 3.2
육계(원/kg)		1,419 원	1,342 원	1,863 원	↑ 5.7	↓ 23.8
계란(원/특란10개)		1,037 "	1,074 "	1,359 "	↓ 3.4	↓ 23.7
오리(원/kg)		1,667 "	1,667 "	2,500 "	-	↓ 33.3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주)뷰인스 간, 치유중심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 농산물 활용 기능성 물질추출 및 제품화 기술개발 -

- 광양시는 치유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5일 광양시청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뷰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서는 치유중심의 6차산업화를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시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수증기 증류 장치 기술이전을 통한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 사업화 ▲치유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 ▲향료소재 허브식물 재배기술 및 허브식물 선정 ▲천연향료 기술전파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 광양시와 코스메틱 전문회사 (주)뷰인스는 ▲광양 농·특산물 이용 추출 물질의 실험결과 및 시료 제공 ▲천연방향수 및 정유 이용한 제품화 연구 ▲추출된 물질의 화장품 원료 매입 ▲기타 천연향료 관련 기술전파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수행과 교류 등 지역 농·특산물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 정현복 시장은 앞으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뷰인스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광양형 6차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더 이상 먹기만 하는 농산물이 아닌 바르는 농산물, 향을 맡는 농산물을 만들어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농업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수지 개선’ 두 마리 토끼 사냥

- 담양군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3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친환경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연시와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이번 연시회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서윤원 박사가 교육을 담당해 자연 농업을 위한 전반적인 농자재 제조원리 및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황토유황합제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 특히, 이날 연시회를 통해 소개된 황토유황합제는 전 농작물에 강한 살균 및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농자재로 100ℓ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5만 7천원 선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시회를 통해 농가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직접 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바른 먹거리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출처 : 담양군

## ■ 곡성군, 토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기본교육 실시

-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행복한 농업인!” -

- 곡성군이 지난 4일 죽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토란작목반 7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국점유율 40%을 차지하고 있는 곡성군 대표 품목인 토란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은 물론 이를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뤄졌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준이다.
- 토란작목반 기록도 대표는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GAP 적용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와 학교급식 식재료 또한 GAP인증 농산물 사용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토란 작목반에서 농한기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GAP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다”면서 “새해 벽두에 이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유근기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앞으로도 GAP인증 확대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와 학교급식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GAP인증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100% 지원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 “비전 5000 품목별 소득왕” 16명 선정

- 쌀·유자·석류·참다래·마늘·한우·전복·김 등 16개 품목 확정 -

- 고흥군이 지난 18일 개최한 비전 5000 품목별 소득왕 선정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16개 품목별 소득왕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군은 2015년 기준 소득조사 결과와 비전 5000 군 핵심부서 및 16개 읍·면에서 추천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농어업인 16명을 품목별 소득왕으로 선정했다.
-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비전 5000 프로젝트를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이듬해인 2011년부터 첫 소득왕 선발을 시작으로 5년 차인 올해 총 75명의 소득왕이 탄생했다.
- 올해 소득왕 농업분야에서는 쌀에 배재호 씨(동강), 유자에 이호상 씨(풍양), 석류에 서정환 씨(과역), 참다래에 김영이 씨(고흥), 하나봉에 신세호 씨(도화), 시설채소에 윤형아 씨(고흥), 마늘에 신주호 씨(도덕)가 선정되었으며, 축산분야 한우에는 신철 씨(포두)가 선정되었다.
- 군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별 소득왕을 대상으로 오는 4월경에 개최 예정인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업인 다이아몬드 및 골드클럽 인증패 수여식 행사 시 소득왕 인증패를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소득왕 선정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고소득 클럽 멘토로 활동하도록 해 그들만의 영농 노하우 등을 고소득 진입 가능 농가에 전파함으로써 더 많은 고소득 농가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고흥군

## ■ 보성군, ‘장도’ 도서지역 토양 시료 채취 분석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일환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도’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일간 토양 시료 채취에 나섰다.
- 이번 토양 분석결과는 장도 섬 가꾸기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적정 비료 시용지도 등 중요한 자료로 쓰여 질 계획이다.
- 특히 앞으로 장도의 농경지 양분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부족한 양분 공급에 힘써 나가며, 과잉시비 및 불균형 시비 등을 방지하고 작물에 필요한 양을 알맞게 공급하는 등 건전한 토양으로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해 현장기술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장도는 별교에서 배를 타고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지역으로 농업기술지도 및 행정서비스 취약지역인 만큼 이번에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상담을 병행했다.
-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도반이 현지 출장하여 경운기, 이앙기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농기계 안전운행 및 고장원인 규명, 정비 및 수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농기계 수리 시 1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계 부품은 무료로 지원했다.

\* 출처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 ■ 화순군, (주)이마트와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 군 단위로 화순군이 유일, 농가소득 증대 기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주)이마트와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 관내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 화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문성후 충청·호남·제주권역 총괄 등 이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등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고 화순군 주 출하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 또한 지역 내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이마트 매장을 적극 활용, 농·축산물 마케팅을 지원한다.
- 특히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수산지 생산자 발굴과 농·축산물 전략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두 기관은 또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 구충곤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순군은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마트는 보다 양질의 농·축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화순군과 이마트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

## ■ 강진군, 귀농·귀촌1번지 앞장선다

- 강진군, 예비 귀농인을 위한 1대1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

- 전남 강진군이 귀농의 제2도약을 위해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명실상부한 귀농·귀촌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군은 꾸준한 귀농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보조금 지원정책 등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 10년간 910여 가구 2,300여명 귀농·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이제 막 전입한 초보 귀농인이 선도농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대1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는 초보귀농인의 정착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초보 귀농인은 1대1 맞춤형교육을 통해 귀농초기 마인드 및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방법부터 전문적인 영농기술 교육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 귀농교육에 선도농가로 참여하고 있는 귀농 6년차 김대열(도암면)씨는 “맞춤교육을 통해 귀농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후배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어 무척 보람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귀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예비 귀농인들이 참여하며 안정적인 귀농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귀농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귀농귀촌 1번지의 원조로써 1대1 맞춤형교육 뿐만 아니라 유기농전원생활대학, SNS 마케팅 교육, 주작목 배움교실 및 생활청자, 천연염색 등의 문화교육도 실시하며 명실상부 귀농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 무안군,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2017 ~ 2019 3년간 공급받을 토양개량제 한꺼번에 신청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급받을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을 늦어도 오는 5월 2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알렸다.
-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 무안군은 올해 총 1만 5,779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며, 적기 미살포로 인한 방치를 예방하고자 1억 6,900만원의 규산 공동살포비도 지원한다.
- 무안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에 따라 이번에 3년 물량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만큼 희망농가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무안군

## ■ 완도스마토 본격 출하

- 해풍 맞고 자란 '완도스마토' 맛·당도 탁월 -

-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 시설재배 주력작목인 빙그레 웃는 완도 이미지와 절 맞는 스마일방울토마토(스마토)가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다.
- 완도에서 재배되는 '완도자연그대로' 완도스마토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9~11°Brix로 일반토마토보다 2~3°Brix가 높고 색택이 좋다. 또한, 저장기간이 3~4일 가량 더 길고 식감이 부드럽다.
- 완도스마토가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시중에서는 다른 지역 방울토마토보다 10~3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완도군은 바이오기능수와 유용미생물을 완도스마토 재배농가에 보급해 연작이 가능하고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는 빙그레 웃는 섬인 "완도(莞島)"의 이미지와 맞는 완도스마토(Smato)를 유기농 명품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완도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칭다오·시안 등 중국 2선 도시...김치·고추장 수출잠재력 높아”

- 한국산 고추장과 김치, 유아용 식품이 중국의 2선 도시에서 수출 잠재력이 있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잠재품목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보고서 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고추장과 김치, 유아용 식품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식품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마케팅을 진행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 2선 도시란 중국 내 직할시와 성소재지인 동시에 인구수가 많은 도시들로 15개 도시가 포함돼있다. 조사는 현지 매장방문(지역별 5곳)을 비롯해 중국 소비자(지역별 120명) 및 전문가, 국내 전문가 및 중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와 관능평가, 가정 조리 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등의 방식을 실시했다.
- ‘중국 잠재품목 발굴 및 마케팅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3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수출 잠재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고추장과 김치, 유아용 식품으로 확인됐다. 공통 품목을 제외하고 도시별로 뽑힌 품목은 칭다오의 경우 산양삼과 쌀·참외·너비아니로 조사됐다. 충칭은 딸기와 쌀·천혜향·황금향·포도·간편밥·에너지바·즉석 떡볶이 등으로 나타났고 시안은 산양삼과 천혜향·황금향·감자칩·말린 과일·어린이 음료·에너지바 등으로 집계됐다.

- 도시별 잠재품목이 다른 것은 지역별 소비 특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 구매 시 칭다오 소비자들은 안전성(38.3%)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지만 충칭과 시안 소비자들은 건강·영양 성분이 최우선이었다. 또 칭다오의 경우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됐다는 점, 중국 내륙에 위치한 충칭과 시안은 유통과정 중 농산물의 신선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 등 지역별 위치와 주변 특성도 잠재품목 선정에 반영됐다.
-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충칭에서는 잠재품목으로 뽑혔지만 배송 중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칭다오), 이미 많은 판매가 이뤄지는 현지 상황(시안)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제외됐다. 3개 지역에서 대상품목으로 제외된 배도 칭다오와 시안에서는 이미 중국산 배가 경쟁력이 높았고 충칭에서는 배 소비가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토마토는 대량 생산(칭다오), 시중에서 많은 물량이 판매(시안), 비싼 가격(충칭) 등으로 경쟁력이 낮게 책정됐다.
- 우선 고추장에 대해 3개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산 재료로 만들어 믿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전통식품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만큼 고추장이 건강에 좋고 안전하다는 점을 부각해 세부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고추장의 활용정보가 부족한 만큼 고추장과 궁합이 잘 맞는 중국 맞춤형 요리개발 및 레시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 김치도 안전성과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하되 칭다오는 한국산 식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라는 점을 강조해 프로모션 해야 한다. 김치 친숙도가 낮은 충칭은 한국라면과 패키지로 증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김치 친숙도가 가장 낮은 시안은 맵고 짭맛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현지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 과자·음료 등 유아용 식품은 한국 내 인증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부모들이 유아용 식품 구매조건으로 안전 식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과 제휴해 유아용 과자를 협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한 쌀은 한국에서 재배·도정 작업을 거친 품질 좋고 안전한 쌀이라는 점을 강조하되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출용 벼 전문생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지정 및 운영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 충청과 시안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천혜향·황금향은 청정섬 제주도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대중국 수출을 위한 수출 전문 재배단지 확대도 요구된다.
- 또 네이밍 현지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고가정책, 선물용 제품 등의 인식도 심어줘야 한다. 산양삼은 중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 중 최고급 품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특별한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기능성 버섯으로 중동시장 개척 ‘잎새마을’

- 식이섬유 풍부 항암예방 효과...중동 및 미주시장 개척 박차 -

- 잎새버섯은 일본에서 ‘춤추는 버섯’으로 유명하다. 잎새버섯을 발견한 사람이 ‘좋아서 춤을 춘다’는 의미다. 춤을 출 정도로 좋은 이유는 잎새버섯의 효능에 있다. 잎새버섯에는 베타글루칸( $\beta$ -glucan)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류·무기질류·식이섬유 등이 골고루 다량 함유돼 있다.



- 특히 앞새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다른 버섯과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 약용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항암효과는 물론 혈당과 혈압을 낮춰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식용은 물론 항암 면역증강제, 암 치료 보조약 등의약품으로 앞새버섯을 활용하고 있다. 식용과 약용 모두 활용 가능한 유일무이한 버섯. 그래서 앞새버섯을 ‘버섯의 왕’, ‘숲의 보석’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식용과 약용으로 약 3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만큼 앞새버섯이 대중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대량재배 방법이 구축, 시판되고 있다.
- 한국에서 앞새버섯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앞새마을. 2013년 8월 법인을 등록한 앞새마을은 법인 등록 3년 전부터 앞새버섯 재배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버섯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 등도 꾸준히 받아왔다.
- 최순학 앞새마을 연구소장은 “앞새버섯은 버섯이 피는 과정이 제일 까다롭다”며 “각종 시행착오를 겪은 후 앞새버섯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 현재 앞새마을은 월 100톤의 앞새버섯 종자를 생산한다. 20톤은 자체 농장에서 앞새버섯을 생산하고 나머지 80톤은 계약재배 농가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앞새버섯은 모두 유기농으로 생산된다.
- 앞새버섯은 TV홈쇼핑인 아임쇼핑에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 앞새버섯 제품을 판매했다. 이날 준비한 제품은 모두 소진됐다. 일명 완판. 총 매출액은 1억 8,000만원. 1월에도 네 차례 방송을 통해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앞새버섯의 식용·약용기능이 부각되면서 총 6차례 모두 완판됐다.



- 조용인 앞새마을 대표이사는 “한번 방송을 준비하려면 약 5,000세트·30톤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공영홈쇼핑 방송 이후 다른 홈쇼핑에서도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수출도 성공했다. 앞새마을은 지난 1월 쿠웨이트에 앞새버섯을 첫 수출했다. 수입처는 쿠웨이트 내 고급레스토랑. 당초 일본산 앞새버섯을 사용했지만 앞새마을의 유기농 앞새버섯이 맛과 향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 수입처를 바꿨다. 추가 수출도 예정돼 있다. 향후 앞새버섯이 중동지역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조용인 대표이사는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물론 한인들이 많은 미국과 호주 등과도 접촉 중”이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앞새버섯의 생산성 향상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천안포도 올해 200톤 수출 목표

- 포도 수출확대 위한 전략 토론회 개최·목표달성 결의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

- 충청남도 내 포도 집산지인 천안에서 올해 포도가 대량 수출될 전망이다.
- 지난 15일 충청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수출 확대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천안포도 수출연구회 등 관계자 50여명은 올해 천안포도의 수출 목표를 200톤으로 세우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지난해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저장·유통 시 신선도 유지와 해외시장 선호도, 재배농가 규격품 생산 등에 관한 토의를 하며 관련 기술 등을 공유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하 천안포도수출연구회장은 “지난해 중국에 포도 30톤을 수출한 경험을 발판으로, 올해는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빠른 추석 이앙시기 앞당겨야 “햅쌀” 생산가능

- 품종선택, 이앙시기, 육묘기간, 육묘방법, 시비량이 중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올해처럼 전년보다 빠른 추석에 햅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벼를 4월 하순경에 이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에서는 추석 대목에 전남 햅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전남쌀의 시장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해 벼 조기재배 사업을 매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금년도 추석은 예년보다 빠른 9월 15일로 이시기에 햅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하순경에 벼를 수확해야 한다. 따라서 7월 상·중순경에 이삭이 패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생종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4월 하순까지는 모내기를 해야 한다.
- 전남지방에 알맞은 조생종 품종으로는 수발아에 강하고 미질이 우수한 조명(우리 도 최초로 육성한 품종)이 가장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인 조평이나 윤광벼·조명1호 등을 선택해도 좋다.
- 4월 하순에 일찍 모를 심으려면 최소한 3월 하순까지는 벼씨를 파종해서 모를 길러야 한다. 전남지방의 3월 하순 평균기온은 대체적으로 10℃ 전후의 낮은 기온으로 노지에서 벼를 육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그래서 저온기에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보온절충못자리를 설치하여 벼를 육묘하는 방법과 가온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마른 발못자리 형태로 육묘하는 방법이 있다. 보온절충못자리에서 육묘하면 비교적 모가 튼튼하게 자라지만 본답에 이양한 후 몸살이 심하다. 가온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육묘한 모는 보온절충못자리에서 육묘한 것보다 모의 키 자람이 약간 적으나 이양 후 새뿌리 내림이 빠르고 잔뿌리가 많아 조기재배에 적당하다.
- 조기재배의 육묘방법은 어린모로 육묘하는 것보다 30일 정도 기르는 중묘가 이양 후에 저온에 잘 견디며 이삭이 패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한, 육묘상자당 130g를 뿌려야 모가 튼튼히 자라므로 파종량을 잘 지켜야 한다.
- 시비방법은 질소질거름을 보통 10a당 9kg 정도 주는 것에 비해 7kg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고 싸라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기재배에서는 생육기간이 짧으므로 새끼 칠거름을 줄 필요가 없고, 벼가 질소거름을 생육초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70% 정도 주는 시비방법이 유리하다.
- 한편 조기재배에서는 30℃ 이상의 높은 온도조건에서 이삭이 패어 일반재배보다 벼가 빨리 익으므로 이삭이 팬지 4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분상질립과 싸라기가 적어 쌀품위와 밥맛을 좋게 한다.
- 식량작물연구소 이인 연구사는 “올해도 추석 전에 고품질 햅쌀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안전한 벼 조기재배 기술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블루베리 썬기벌레 방제는 지금부터

- 블루베리 수확하다 썬기벌레 쏘이면 아프죠, 지금 잡으세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블루베리 과수원의 불청객 블루베리 썬기나방을 방제할 수 있는 손쉬운 방제요령을 발표했다.
- 블루베리 썬기벌레는 수확철에 가장 골치 아픈 해충으로 썬기에 쏘이면 살갓이 부풀고 가려우면서 따끔거려 수확하는 농부들을 괴롭히고 두렵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확철에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되므로 재배농가는 썬기나방을 잡기위해 농약을 칠 수 없는 실정이다.
- 썬기나방의 생리생태를 관찰한 결과 썬기나방은 늦가을에 블루베리 가지에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로 겨울철을 난다. 이 시기에 겨울 전정을 하다보면 약 2cm 내외의 갈색 콩알 같은 것이 가지 끝에 달려있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 또한 전정이 끝난 후에 잘 발견되므로 잎이 나오기 전에 썬기나방이 월동하고 있는 고치를 수거해서 제거해 버리면 수많은 애벌레들과 씨름할 필요를 덜 수 있고, 봄이 완연해지면 블루베리 잎이 나서 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순나기 전인 겨울철과 지금이 관찰과 방제 작업의 적기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연구사는 “전남 남부 해안 지역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서 매미나방이 3월 중순부터 부화해서 활동을 시작하므로 썬기나방 고치를 제거할 때 매미나방 알무더기도 함께 제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작물 쑥쑥 자라게 돕는 광합성 세균 개발

- 오이·토마토 어린 모종 초장·무게 9.9~45% 증가... 친환경 작물 재배에 기여 -

- 오이와 토마토 어린 모종을 쑥쑥 잘 자라게 도와주는 광합성 세균 균주가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내 토양에서 분리한 광합성 세균 중 오이와 토마토 어린 모종의 생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난 ‘로도슈도모나스 팔루스트리스(Rhodospseudomonas palustris BS-3)’를 개발했다.
- 광합성 세균은 빛을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자라는 세균으로써,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식물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 아미노산·비타민 등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해 생장을 돕는다.
- 또한, 혐기성\* 미생물로 공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토양에서 생존력이 좋아 농업용 미생물제로 활용 가치가 높다.

\* 산소를 싫어하여 공기 속에서 잘 자라지 않는 성질

- 이번에 개발한 ‘광합성 세균 BS-3’를 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 어린 모종에 106세균수/ml 농도로 1주일 간격으로 4회 뿌린 뒤 5주째 생장을 조사한 결과, 배지만 처리했을 때 보다 오이의 초장(풀길이)은 45, 무게는 9.9 늘었고, 토마토는 초장이 22, 무게가 21.4%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광합성 세균 ‘BS-3’ 균주에 대해 농가 실증 실험과 대량 배양, 제제화 등 기술적 보완을 거쳐 친환경 농자재로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유재홍 농업연구사는 “광합성 세균은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미생물로서, 실용화할 경우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작물 재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감자 터짐 증상, 수확 늦을수록 심해요

- 제때 수확하고 수확 1~2일 전 잎줄기 미리 뽑으면 터짐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하우스에서 수확하는 감자의 터짐 증상을 줄이려면 제때 수확하고 수확하기 1~2일 전에 잎줄기를 미리 뽑을 것을 당부했다.
- 감자를 겨울철 하우스에 파종해 이른 봄에 수확하면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시기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수확할 때 감자 껍질과 속살 일부에 좁고 얇게 금이 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 농촌진흥청의 '겨울철 하우스재배 감자의 수확시기, 수확방법, 괴경(덩이줄기) 크기에 따른 터짐 증상 발생연구' 결과에 따르면, 봄에 너무 늦게 수확하거나 경운기나 트랙터를 부착한 수확기(굴취기)를 이용하면, 크기가 큰 감자일수록 터짐 증상이 많이 발생했다.
- 하우스재배 감자는 일반적으로 12월에 파종해 4~5월에 수확하는데, 수확량을 늘릴 목적으로 수확 시기를 5월 하순으로 늦추면 감자가 많이 굵어져 일부품종의 경우 터질 가능성이 20~4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증상이 심한 감자는 수확하기 1~2일 전에 잎줄기를 미리 뽑아 놓으면 터짐이 주는 효과가 있었다.
- 이는 땅 속의 감자가 수확 전에 잎줄기에서 미리 분리돼 수분 흡수가 억제됨에 따라 감자 내부의 팽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때문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장동철 박사는 “하우스 재배 감자를 수확할 때 괴경 터짐 증상을 줄이려면 제때 수확하고, 수확 전에 잎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감자 터짐 증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품종 육성과 수확 방법 등 연구에 힘써 농가에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이제 농장 날씨·재해 정보, 미리 휴대전화로 받아본다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실시... 이상기상 피해 예방 기대 -

-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재해정보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장별로 날씨와 재해 정보, 관리 대책을 제시해 주는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섬진강 유역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범지역인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와 광양·경남 하동은 지리산 자락의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좁은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또,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날씨변화에 따른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경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지다.
- 시범지역 내 농장에서 아침기온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평균 0.1℃에 불과해 농장 날씨의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실황,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토대로 해당 농장의 고도와 지형, 도심과의 거리, 지표면 피복 상태에 맞춰 수정한 상세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재배 중인 농작물의 품종과 생육 단계에 맞춰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등 위험 단계별로 상황을 알려주고, 동시에 위험 단계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도 함께 제공한다.
- 이 시스템은 현재 시범 지역 내 500여 농가에 ‘농장 날씨’, ‘농장 재해정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서비스하고 있다.
- ‘농장 날씨’ 정보는 농장별 기온·강수량·일사량·일조시간·풍속 정보를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강수량·일사량·일조시간·풍속은 최대 3일 후까지 예보한다.
- ‘농장 재해정보’는 가뭄해·일소해·고온해·동해·상해 등 단기에 피해를 입는 기상재해는 물론, 오랜 기간에 걸친 이상기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냉해·일조 부족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재해 위험 여부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 ‘관리대책’ 정보에서는 재해위험 발생 시 작물별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가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대상 지역을 올해 10개 시·군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전국에 서비스 기반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심교문 농업연구사는 “이상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앞으로 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농업 기상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잠자는 농업기계를 깨워 준비운동 시키자 !

- 겨울철 장기보관 중인 농업기계 점검, 정비로 영농경영비 절감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장 김성일)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원활한 농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농기계 사용 전 점검·정비 요령을 발표했다.
- 먼저 농업기계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주고 윤활유가 필요한 곳은 윤활유를 주입하고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엔진과 밋션 오일의 양과 유량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깔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한다.
- 연료필터도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연료탱크, 연료관, 연결부 등에 균열이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연료탱크 내에 침전물 등 오물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연료를 채워둔다.
- 냉각수가 새는 곳은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점검한다. 냉각수는 보조 물탱크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다.
- 에어클리너의 경우, 건식은 엘리먼트의 오염 상태를 봐서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한다.
- 각종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4분간 난기운전을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창옥 농업교육과장은 “겨우내 묵혀 놓았던” 농업기계를 그냥 사용했다가는 고장으로 안전사고나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기종별 참고 자료를 잘 숙지하여 “영농철을 대비해 미리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7. 정책 동향

### ◆ 수박꼭지 유통 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 실시

-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실시 -

□ 목적 : 기존 'T-자형'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1-자형' 짧은 꼭지로 개선하여 유통효율화 도모

○ 일시/ 장소 : 2016. 3. 23 (수). 15:30~16:30 /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

○ 참여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단체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주)이마트, 롯데마트(주), 홈플러스(주)

□ 협약내용 :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 실시

○ (농식품부·농협)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홍보 등 유통활성화 지원

○ (도매법인·유통업체) 꼭지 짧은 수박 취급 및 도매시장 우선경매

○ (소비자단체) 'T-자형' 꼭지와 꼭지 짧은 수박의 품질 차이가 없음을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 기대효과 : 수확 노동력 절감으로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 유통감모 감소 등으로 연간 최대 627억원의 비용절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15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 전액 지급완료

- 전남도, 목표가의 97% 보전...쌀농가 소득안정 큰 보탬 -

- 전라남도는 201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2차 미지급 금액을 해당 농가에 전액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 변동직불금은 당해 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된 이후 통상 다음 연도 3월에 지급되나 올해는 설과 봄철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1, 2차로 나눠 지급했다.
- 2015년산 쌀값 하락에 따라 지급되는 전남지역 쌀변동직불금은 총액은 1천 550억원으로, 지난 설 이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이번에 지급한 것이다.
- 쌀 80kg 가마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1만 5천 867원이다. 이는 가마당 목표가(18만 8천원)과 수확기 쌀값 15만 659원에 대한 차액의 85%에서 지난해 말 지급한 고정직불금 1만 5천 873원을 뺀 금액이다.
- 이에 따라 실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가는 쌀 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 1만 5천 873원과 변동직불금 1만 5천 867원, 산지쌀값 15만 659원, 총 18만 2천 399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목표가격의 97% 수준이다.
- 전남지역 쌀변동직불금은 지난 2005년 최고인 1천 722억원이, 2010년 1천 559억원이, 2014년에는 쌀값 하락폭이 적어 46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쌀변동직불금이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오는 4월 29일까지 시·군·읍·면·동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국가식품클러스터, 강소 식품기업 유치 가속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제너럴네이처, 코엔에프(유) 등 국내 식품기업 2개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농식품부·전라북도·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및 제너럴네이처 백진수 대표, 코엔에프(유) 임종목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제너럴네이처는 쌀 품종 고아미 4호 등 기능성 곡물을 이용한 효소제품 및 기능성 청국장 분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소재 생산기업으로,
- '16년 3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지원을 통해 곡류효소 및 청국장 분말을 활용하여 유산균 제형개발을 위한 기업공동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 기업공동 기술지원의 기능성 제품 기호도 측정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곡류 효소제품과 기능성 청국장제품의 중화권과 아프리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코엔에프는 GS25 등 주요 편의점 내 액상커피·캡슐 음료 등을 유통하는 음료제조 업체로써, 현재 국내 캡슐유자차 생산 점유율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담터, 꽃샘식품의 캡슐유자차를 OEM 생산 중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능성과 풍미를 향상시킨 발효커피 제조기술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시설 설립을 통해 액상커피 및 캡슐 홍삼·모과·여주 등 건강기능성을 강화한 제품도 생산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기업지원시설과 산업단지의 완공시기가 다가오면서 식품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작지만 기술력을 가진 국내 강소 식품 기업인들의 입주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 “국내외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가속화를 통해 국내 강소식품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수출·인력·마케팅·해외 네트워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16. 4. 1. ~ 4. 30. (30일간)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 농식품부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 농약안전관리를 해 왔다.
- 이를 통해 농가가 보관중인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반납('15. 9. 1.~) 받아 회수하였고, 기존 다량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조사('15. 11. 4. ~ 11. 13.)하여 655개를 추가 회수 조치하였다.
-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①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②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③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④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하며,
-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미국, 자유무역 협정으로 10년간 낙농가 83억달러 추가소득

- 미국 유제품 수출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낙농가들은 83억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전국 우유생산자연맹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 이와 같은 추가소득을 농가단위로 환산하면 우유 100파운드당 유대로는 34센트에 해당하고 젖소 두당 연간 75달러의 추가 소득을 유발하였으며, 200두 사육농가 기준으로는 연간 1만 5,000달러의 소득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유제품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625%가 증가한 71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 유제품 수출액 1달러는 2.76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현재 전 세계 유제품시장이 침체되고 오는 2017년까지는 완전 회복이 어렵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국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하면 낙농가는 물론 가공업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미국 유업계가 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느냐에 대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지난해 대만 수입식품 통관검사, 국산 배추·소스류 불합격 판정

- 잔류농약 및 방부제 기준 초과...현지 검역기준 이해 필요 -

- 지난해 대만시장에 수입된 농식품 중 우리 제품의 불합격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수입통관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정부로부터 총 952건의 수입 농식품이 통관 보류 및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문제가 발행했던 품목은 신선채소·신선과일·차류·소스류 순으로 나타났다.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신선식품의 잔류농약 검출 건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 중 한국산 배추·파·백합 등이 가장 많이 불합격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소스류 품목에서도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불합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배추가 전수검사를 받고 있고, 우리 소스류의 모니터링 검사가 50%까지 강화된 상태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만 사무소는 통관규제를 받는 농식품이 늘어날수록 전반적인 우리 농식품 안전성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농가 및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3. 28.(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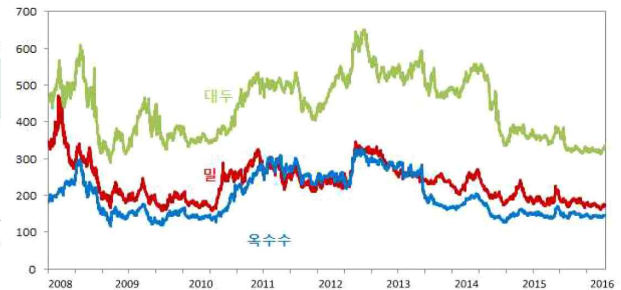
미국 밀 벨트 건조한 기상 우려로 밀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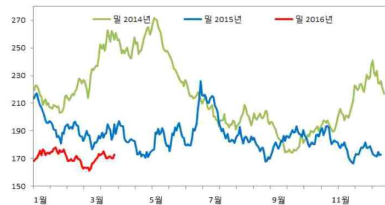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3.28)	전일대비	전월평균 ('16.2)	2015 평균
밀	173.06	▲1.7%	169	186
옥수수	145.82	▲0.1%	143	148
대두	333.99	▼0.2%	32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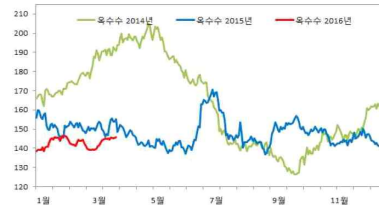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작물 생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겨울 밀 벨트지역의 건조한 기상 상태에 대한 우려로 기술적인 매수세와 숏 커버링 거래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세계적으로 풍부한 사료용 곡물 재고량 부담과 세계 2위 곡물 소비국인 중국의 옥수수 선물가격 급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밀 선물가격 상승 지지로 소폭 상승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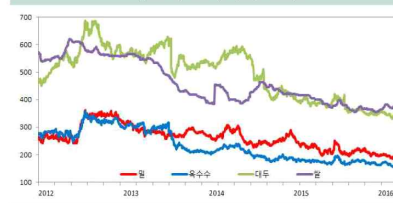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의 봄 파종 보고서 발표 전 거래인들의 포지션 조정을 위한 차익 실현 거래로 하락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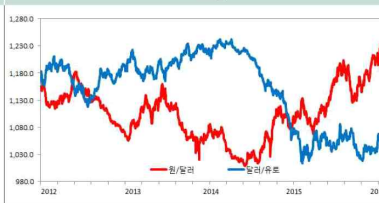
## 관련동향

● 국제유가는 석유 공급과잉 우려 지속,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추정, 주요 투자은행의 유가 약세 전망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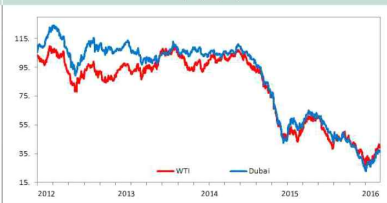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92	▼0.1%		원/달러	1,169.4	▲0.2%
	옥수수	164	—		달러/유로	1.1159	▼0.2%
	대두	350	▼0.3%		WTI	39.39	▼0.2%
	쌀	380	—		Dubai	36.31	▲0.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3.28(수출가격), '16.3.28(환율), '16.3.2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제2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 공모

- 농업의 6차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제조·가공기술을 접목해 생산된 농특산품의 상품화를 위해 포장디자인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특산품 품질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포장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시를 통해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장디자인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명 : 2016년 제2회 농촌마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공모
- 응모대상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 : 농업인, 법인, 마을공동체 등
- 공모분야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은 포장재 등 기능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을 모두 포함함
- 주제 : 소비자가 공감하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 상품이 목표하는 소비자층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포장디자인
  - 소비자의 취향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게 부각시킨 포장디자인

○ 접수기간 : 2016. 4. 11.(월)~4. 22.(금)

○ 제출내용 : 참가신청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설명서, 완성품 실물  
- 양식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http://www.naas.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팜업창)

○ 참가신청서

- 사업체 및 사업현황 소개, 농특산품 및 포장디자인 간략 설명, 연락처 등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 A4용지 1매

○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설명서

- 포장디자인 최종 개발안, 착안점, 추진방법 및 개선효과 등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 A4용지 5매 이내, 일부 이미지 삽입 가능

○ 현물 접수

-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완제품 현물

※ 상온 보관 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내용물은 제외하고 포장재만 제출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와 포장디자인설명서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현물은 택배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접수 후 확인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로 문의

○ 접수처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423호

- 전자우편 : [aidang@korea.kr](mailto:aidang@korea.kr)

- 주소 : (우)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http://www.naas.go.kr/>)으로 문의

\* 출처 : 농촌진흥청



## ◆ 중국 수출용 쌀 안전성 확보 나선다

-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 발간·보급 -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쌀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가운데 대중국 수출용 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알맞은 농약을 선발해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한 ‘중국 수출용 쌀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을 발간·보급한다.
- 이번에 보급하는 지침서에는 벼의 재배 시기별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했다.
- 특히, 병해충별로 또는 사용방법별로 농약의 종류, 사용적기, 사용량, 안전사용 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또한, 항공방제용 농약도 포함돼 있어 개별 방제는 물론, 공동방제 시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 수출용 가공공장, 수출업체, 수출단지 등에 미리 보급해 영농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국 수출용 쌀의 안전성 확보와 통관 규제 예방을 위해 식량산업기술지원단,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대중국 수출쌀 기술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한다.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문병철 과장은 “수출농산물은 대상 나라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한 농약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우리나라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농약 뿌리는 횟수와 최종적으로 뿌리는 시기는 지침서를 꼭 따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7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